

#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향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국 문 요 약

공공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등의 많은 창업지원 자금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창업기업에 약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부처별 창업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39.1%로 10곳 중 4곳 정도만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은 27.5% 10곳 중 3곳 정도만 살아남는다. 반면 해외 창업기업들은 5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고 총 245부 중 22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하위 요인 중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하위 요인 중 사업계획서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넷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초기창업자, 창업동기, 창업준비, 사업계속의도, 창업만족도

## 1. 서론

공공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간(2016~2018년)창업기업에 약 100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2020)도 2015~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16조원을 지원했다. 은행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였고 창업지원금으로 신보에 65억 원을 특별 출연하였거나 혁신창업대출상품 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2020)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4)와 한국엔젤투자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예산인 1조 9000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하고 전체 출자재원 중 5,200억 원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고, 7,000억 원은 초기에서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초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2020)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이낸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창업초기기업들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2018)의 국내창업기업 생존주기(2015년 최종기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39.1%, 5년 생존율은 27.5%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5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고 있다.

OECD가 발간하는 보고서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t

\*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hanhyangwon@gmail.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kyusooha@naver.com

· 투고일: 2020-07-10 · 수정일:

· 게재확정일: 2020-08-04

a Glance)’의 통계자료를 보면 스웨덴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창업기업 3년 생존율은 각각 75.2%, 60.4%, 54.4%, 52.6%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도 각각 62.6%, 50%, 52%, 5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창업기업이 5년 내 10곳 중 7곳이 폐업을 하고 있다. 대규모 지원에도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금융지원이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Sandberg & Hoffer(1987)는 ERIS 모델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의 실패 원인을 연구하였는데 한국 창업기업의 실패는 ‘사업준비 부족형(경영의 어려움-기업가 요인)’이 가장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준비 부족형 실패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창업하고 결국 불완전 제품을 출시하였다가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Shephard(2000)는 창업 기업신생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시장에서의 새로움, 생산의 새로움, 경영의 새로움을 들었다. 하규수(2009)는 초창기의 창업기업일수록 기업가의 리더십과 역량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성주 외(2014)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창업초기 기업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김성훈·남정민(2016)은 창업활성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수많은 지원사업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창업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이라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기만(2018)은 실제 창업을 한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가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업전에 사전 준비가 잘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창업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창업 전이나 창업 후에도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은 철저히 받아야 하며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록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유용하다고 연구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반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창업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창업자들의 창업성과 외적인 창업만족이나 사업계속의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초기창업자들이 정확한 창업준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창업동기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맞는 창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2.1 초기창업자의 개념

Schumpeter(1934)는 창업자를 창조적 파괴과정에 기여하는 리더로서 경제시스템에서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통합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Ajzen(1991)은 초기창업자 행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의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 의도를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Swiecz and Lydon(1996)는 창업가가 유망한 비전을 기반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Reynolds & White(1997)초기창업자(Nascent Entrepreneur)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Aldrich & Martinez(2001)은 초기창업자는 그 정의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태동 가능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진지하게 창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이후 연령별 조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Kantis et al.(2002)은 창업 후 3년간의 초기 발달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자금조달 등 경영문제의 해결을 통해 창업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시기이다. 국내에서 초기창업자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의 3에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박해근·양동우(2018)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6조 1항에서는 입주대상 및 기간을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통계청(2018)의 기업생멸행정통계는 창업기업의 5년간 생존율 제시하였으며, 아산나눔재단의 마루 180에서는 스타트업 보육 대상 창업이후 5년 이내로 하였다. 조달청은 창업초기이면서 조달 시장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범위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송치승·노영환(2011)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평균 생존기간이 약 5년으로 연구하였으며, 오재우 외(2015)는 창업 초기기업을 창업진흥원에서 규정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박준기·이세윤(2017)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스타트업 초기단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혜영·김진수(2017)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대상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화 과정에 있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박정우(2020)은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는데 평균적으로 5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2014), 송치승·노영환(2011), 오재우 외(2015), 박정우(2020)는 초기창업자란 창업한지 5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창업자로 정의하였으며 연령별 초기창업자의 선행연구를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연령별 초기창업자의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연령	세부연구
국내 관련 자료 및 학술 논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년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창업보육센터	3년	창업보육센터 입주 사업개시일로 3년 이내
	통계청(2018)	5년	기업생멸행정통계 5년 생존율 제시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5년	스타트업 보육 대상 창업 이후 5년 이내
	조달청(2014)	5년	창업초기이면서 5년 이내의 기업
	송치승·노용환(2011)	5년	벤처기업 창업이후 5년간 생존율 금감
	오재우 외(2015)	5년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박준기·이세윤(2017)	5년	창업 후 5년 이내의 스타트업 초기단계
	이혜영·김진수(2017)	3년	업력 3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대상 연구
	박정우(2020)	5년	초기단계를 벗어나 평균 5년 소모 기업

출처: 박정우(2020)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 2.2 창업동기의 개념과 구성

### 2.2.1 창업동기의 개념

동기(Motive)는 오늘날 교육학, 심리학, 전략경영 등 다양한 학문에서 많은 연구되고 있는 개념으로써,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으로 총칭하고 있다. 창업동기는 창업을 의도하거나 선택하게 된 추진동력이나 이유와 연관된 개념이다. Gilad & Levine(1986)은 푸시-풀이론(push-pull theory)에서 전통적으로 창업동기에 관한 가장 대표적 이론으로서 대표적 풀(pull)요인으로는 성취욕구, 독립심, 사회적 사명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창업기회 자체의 매력과 창업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Begley & Boyd(1987)은 창업동기는 창업 성공여부를 가름하고, 창업이후에도 기업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Ajzen(2005)은 창업동기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신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주헌(2008)은 동기이론에서 개인의 욕구를 크게 경제적 욕구와 관련된 하위욕구와 사회적욕구, 자기존중 욕구와 자기실현 욕구 등과 관련된 상위욕구의 구조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Carsrud & Brannback(2011)은 창업동기도 내재적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는데 내재적 동기는 성취감이나 성공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며, 외재적 동기는 돈이나 권력, 신분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동기의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동기,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2.2 경제적 성취동기의 개념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0년 3월 국내 성인남녀 1,348명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남녀 5명 중 1명이 창업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위해 창업을 시작하지만 창업자 중 50% 이상은 2년을 견디지 못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창업을 하는 주된 동기는 ‘돈’이 이었는데 51%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창업자들의 창업동기는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 창업을 하고 있다.

McClelland(1961)는 성취동기이론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려운 목표에 대해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성과를 실현시킨다고 하였다. Shane Kolvereid & Westhead(1991)의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창업가들의 창업동기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업가들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높은 통제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한·김해룡(2001)은 주로 창업자의 심리적특성 중에서도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며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와 기준을 수립하고 성과를 달성한다. 강한혁(2019)은 창업가들은 외적인 성과에 대해 집착하는데 권력, 돈, 사회적지위 등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였다.

### 2.2.3 자아실현 동기의 개념

1943년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Maslow)가 저널에 게재한 욕구위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의 가장 상위욕구에 있는 자아실현 욕구는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완성하려는 욕구이다. Murray(1938)은 이러한 자아실현욕구는 개인의 성취욕구에서 비롯하는데 주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술을 숙달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여 자신이 설정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말한다. Carter et al.(2003)은 창업 및 직업선택 요인으로 제기한 6가지 요인은 자아실현, 재무성공, 역할, 혁신, 인정 및 독립이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다. 김경은·주병철(2018)은 자아실현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적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에 창업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 2.2.4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의 개념

윤종록 외(2009)은 혁신성(Innovation)은 창업가의 특성 중 경영성과에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Schumpeter가 처음으로 강조한 것으로 그 후 창업가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다. Hisrich & Peters(1986)는 기업가에게 필요한 능력 자체로 정의하고 있다. Roger(2003)는 혁신성이 높은 집단은 아이디어수용,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위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Rogge & Hoffmann(2011)은 혁신은 전

통적인 의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개인 또는 다른 부처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실천 또는 대상이다. 창업자들이 고민한 새로운 아이디어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높다. Gartner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무엇이나?’ 질문을 하였는데 90가지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평가 추출되었는데 혁신(Innovation), 성장(growth), 독특성(uniquness)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Gartner의 혁신성의 속성을 살펴보면 신규 및 기존의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시장 또는 기술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는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혁신성이란 Rogge&Hoffmann(2011)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실천 동기로서 아이디어 실현동기로 정의 내렸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창업동기의 하위요인 선행연구

구분	내용	연구자
경제적 성취동기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려운 목표에 대해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성과를 실현	McClelland(1961)
	창업자의 심리적특성 중에서 성취욕구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며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와 높은 기준을 수립하고 성과달성	정성환·김해룡 (2001)
	창업자들은 외적인 성과에 대해 집착하는데 권력, 돈, 사회지지 등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	강한혁(2019)
자아실현 동기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완성하려는 욕구	Abraham Maslow (1943)
	개인의 성취욕구에서 비롯하는데 주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술을 숙달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여 자신이 설정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Murray(1938)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경험에의 개방 성, 실재적 삶, 자신에 대한 신념, 자율성, 창조성	Rogers(1951)
	창업 및 직업선택 요인으로 제기한 6가지 요인은 자아실현, 재무성공, 역할, 혁신, 인정 및 독립채택	Carteretal(2003)
	자아실현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적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에 창업활동에 핵심적 역할	김경은·주병철 (2018)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혁신성(Innovation)은 창업가의 특성 중 경영성과에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가 지속	윤종록 외(2009)
	기업가에게 필요한 능력 자체로 정의	Hisrich & Peters (1986)
	혁신은 개인 또는 다른 부처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실천 또는 대상, 창업자들이 고민한 새로운 아이디어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의지	Rogge&Hoffmann (2011)

출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 2.3 창업준비의 개념

Bird(1988)은 창업은 명백하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남정민 외(2013)는 창업이란 창업주 개인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이전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업종선정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남정민(2013)은 자신의 연구에서 창업 준비를 ‘업종선정’, ‘기술 확보’, ‘인력 확보’, ‘사업장 위치선정’, ‘자본금 확보’에 대한 준비정도를 중심으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철저한 창업준비는 창업시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재우·양동우(2014)는 창업에 필요한 자원인 기술, 사업아이템과 인력, 자원 확보하는 과정으로 창업준비는 창업자의 시간투자 정도와 노력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선량·허철무(2019)는 창업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창업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창업 준비는 창업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구체적으로 창업준비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으로 사업아이템 준비, 네트워크준비, 창업팀준비를 구분하여 연구하고자한다. 다음과 같이 창업준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창업준비의 선행연구

연구자	제 목
Bird(1988)	창업은 명백하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남정민 외(2013)	창업이란 창업주 개인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이전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업종선정 등을 철저히 준비
Nam(2013)	자신의 연구에서 창업준비를 ‘업종선정’, ‘기술 확보’, ‘인력 확보’, ‘사업장 위치선정’, ‘자본금 확보’에 대한 준비정도를 중심으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철저한 창업준비는 창업 시작에서 가장 중요
오재우·양동우(2014)	창업에 필요한 자원인 기술, 사업아이템과 인력, 자원 확보하는 과정으로 창업준비는 창업자의 시간투자 정도와 노력에 비례
선량·허철무(2019)	창업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창업활성화에 중요

### 2.4 창업만족도

김영부(2019)는 창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창업성과와 관련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경험, 학력, 동기 등을 배경적 변수로 구성하여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측정하거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다. Cooper et al.(1984)은 기존 연구들의 신제품성공에 대한 측정이 단일 차원이 재무적 척도로만 되어 있음을 비판하였고, 재무적 척도는 신제품 성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측정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 오히려 성과측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애(2013)는 창업만족이란 창업자가 현재 창업한 분야에 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상화·하규수(2015)는 개인이 현재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고 만족도란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상태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종성(2016)은 창업만족은 창업 CEO가 체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자, 창업성과를 측정하는 간접지표로의 취급이 가능하며, 창업CEO의 창업환경, 이윤창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화, 목표의 성취, 창업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지상태 등 창업CEO가 창업을 통해 느끼는 현재 상황과 미래 기대감에 대한 인지상태 등 포괄 적 감정 상태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창업만족도의 선행연구

연구자	제 목
김영부 (2019)	창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 가능 기존의 창업성과와 관련된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경험, 학력, 동기 등을 배경적 변수로 구성하여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측정하거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시도한 연구 부족
Cooper et al (1984)	기존 연구들의 신제품성공에 대한 측정이 단일 차원이 재무적 척도로만 되어 있음을 비판하였고, 재무적 척도는 신제품 성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측정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 오히려 성과측정으로 정의
김경애 (2013)	창업만족도가 창업자의 사업 지속성에 직접·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은 매개변수가 주는 영향을 파악이 중요
이상화·하규수 (2015)	개인 이 현재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고 만족도란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상태
이종성 (2016)	창업만족은 창업 CEO가 체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자, 창업성과를 측정하는 간접지표로의 취급이 가능하며, 창업CEO의 창업환경, 이윤창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화, 목표의 성취, 창업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지상태 등 창업CEO가 창업을 통해 느끼는 현재 상황과 미래 기대감에 대한 인지상태 등 포괄 적 감정 상태로 정의 하였다.

## 2.5 사업계속의도

Schein(1978)은 사업의욕은 현재 사업 중인 기업가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토대를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구이다. 사업유지의사에 대한 이론이 명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Mazzarol(1999)은 사업의욕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감, 위험감수에 대한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등 개인적인 특성과 창업전의 직업과 교육, 종교 등 배경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다. 하규수·한

정화(2010)는 사업의욕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문모(2012)는 1인 창조기업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예비 1인 창조기업가들의 경우 기초 역량이 없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큰 위험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인우 외(2015)은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지속성 분석에서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업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애(2013)는 사업지속의도라 함은 현재 창업자가 일에 대한 만족으로 현재 업종을 지속하는 것이다. 즉, 일에 만족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을 지속적으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이 현재 창업한 업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사업지속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기만(2018)은 실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가나 기존창업가들에 사업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기업가정신을 갖추어야 하고 창업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경험 등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업지속의도, 사업유지의사, 사업의욕, 사업지속성, 사업성취욕, 사업지속의도 등 연구자마다 다르게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이론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경애(201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사업계속의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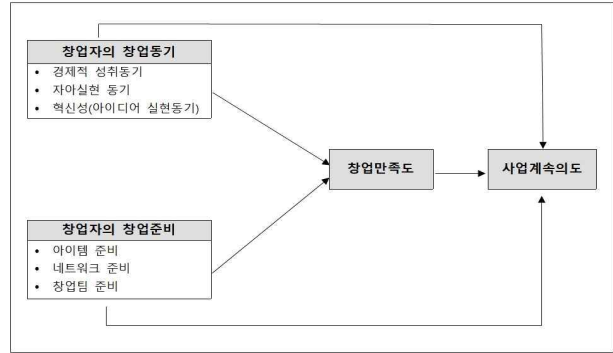
<표 5> 사업계속의도의 선행연구

연구자	제 목
Schein (1978)	사업의욕은 현재 사업 중인 기업가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토대를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구
Mazzarol (1999)	사업의욕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감, 위험감수에 대한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등 개인적인 특성과 창업전의 직업과 교육, 종교 등 배경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
하규수·한정화 (2010)	사업의욕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바탕
구문모(2012)	1인 창조기업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함
이인우 외 (2015)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지속성 분석에서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업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침
김경애 (2013)	사업지속의도라 함은 현재 창업자가 일에 대한 만족으로 현재 업종을 지속하는 것 즉, 일에 만족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을 지속적으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이 현재 창업한 업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사업지속의도 함
이기만 (2018)	실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가나 기존창업가들에 사업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기업가정신을 갖추어야 하고 창업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경험 등을 충분히 수행

### III. 연구 방법

#### 3.1 변수들의 요인 도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논문을 근거로 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창업동기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 동기,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으로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은 아이템준비, 네트워크준비, 창업팀준비로 각각 구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창업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들과 그 하위요인들간의 관계성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연구 분석틀 및 가설설정

상기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틀은 <표 6>과 같다.

<표 6>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정의	측정항목	선행연구	
독립 변수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창업자들의 창업동기는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려는 자세와 창업	부 축적 성취동기	McClelland(1961), 정성환·김해룡(2001), 강한혁(2019)
		자아실현 동기	창업자들의 자아실현욕구는 개인의 꿈을 성취하려는 욕구에서 비롯하는데 창업가로서 꿈을 꾸고 실현시키려는 동기	자아실현동기	Carter et al(2003), 김경은·주병철(2018)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실천 동기로서 아이디어 실현동기로 정의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	Rogge&Hoffmann(2011), 윤종록 외(2009)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창업 전 아이템에 대한 사전준비 및 경험도와 노하우 축적	아이템 준비정도	Nam et al.(2013)
		네트워크 준비	창업 전 거래처, 관련종사자, 전문가 등의 네트워킹 준비 정도	네트워크 준비	Coleman(1988), Lin(2002)
		창업팀 준비	창업 전 창업팀 구성 준비정도 및 사전조사여부	창업팀 준비	Chowdhury(2005), Vyakarnam et al.(1999), 이해영·김진수(2017)
매개 변수	창업만족도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창업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의 성과에 대한 기대 달성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현재사업만족도 창업 비재무적성과	Cooper et al(1984), 김경애(2013), 이상화·하규수(2015)	
종속 변수	사업계속의도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초기 창업자들이 창업에 만족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지와 일에 만족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향후에도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현재사업계속의도 향후사업계속의도	Schein(1978), 하규수·한정화(2010), 구문도(2012), 이기만(2018)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기의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3.2.1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간의 관계

Begley & Boid(1987)는 창업동기의 경우 창업자체 성공여부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특성이나 성공에 핵심적 요인이다. 또한 변충규·성장수(2014)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동기와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주요 속성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속성을 비교 분석하는 중요도-만족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는데 필요형 창업은 기회형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 준비기간의 한계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창업

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자원의 부족으로 재무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선협·안은재(2018)는 창업 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창업동기, 기업가지향성, 창업의지로 구분하였다. 창업에 대한 사전적 준비에서 창업동기요인이 중요하며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에서 어떤 요인을 갖고 창업을 할 것인가를 찾아냈다고 하였다. 이원석·주동범(2016)은 자발적인 창업으로 창업동기일 경우 직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강한혁 외(2019)은 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가 정신 그리고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가설 검증을 통해 창업동기 중 성취동기만이 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검증되었다. 창업동기의 자발성(생계형 창업이 아닌 자발적 창업)은 창업결과인 창업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 3.2.2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간의 관계

강순빈(2012)은 소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창업동기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 사전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사전준비는 기업성과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정민 외(2013)은 창업 시작에 앞서 창업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창업준비성이 창업이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오재우 외(2015)는 창업준비기간이 창업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으나 비재무적성과에는 유의한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남표·권영주(2018)는 창업자 특성에서 벗어나 창업 준비단계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를 통해 창업준비 수준 등 개인의 노력 정도에 따른 변수들을 중점 연구하여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창업 준비정도와 창업성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창업준비성이 충실할수록 재무적성과는 기각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채택, 창업만족도는 채택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설정하였다.

#### 가설 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

이인우 외(2015)은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지속성 분석에서 사업의 만족도와 향후 지속성에 관련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어떠한 부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향후이용의사에는 코디네이터, 연구책임자, 맞춤형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추천의사에는 연구책임자, 맞춤형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종성 외(2017)는 외식 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업지속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2016)은 대졸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직무적합은 창업에 따른 일자리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만족도는 이

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해보아 창업에 따른 자신의 직무에서의 적합은 창업성공에 매우 중요하며 창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희혁(2020)은 사업지속의도는 호의적인태도, 태도와 행동의 만족스러운 변화, 창업자의 창업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의도라고 하였다. 또한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만족을 느꼈을 경우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만족도와 사업지속의도와 창업성공은 관계성이 높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2: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4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선행연구들에서는 창업동기와 창업성과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조정미·공병훈(2012)은 1인 출판 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행동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1인 출판의 지속적 창업행동 분석에 의하면 창업자는 1인 출판의 창업과 경영활동의 결과인 사업성과의 내적 외적 보상을 평가하여 목표 및 사업아이디어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창업행동을 지속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병권(2014)은 창업동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성과를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기술적 성과로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인식을 제외하고 각각의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혼재하여 나타났다고 하였다. 강한혁(2019)은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기업 경영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창업동기 중 성취동기만이 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결국 창업동기는 재무,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어 경영성과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영성과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는 Maignan & Ferrell(2001)의 경영성과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친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 3.2.5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오재우 외(2015)는 창업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비재무적성과에는 창업지원금액만 유의한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태희·주성희(2015)는 사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점포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소상공인 전체에서는 현재 영업 상황 단계, 창업동기, 창업직전의 직업, 사업체 운영실패경험, 창업 준비기간, 사업운영기간,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금 경험, 경쟁상대로부터 사업지속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점의 경우는 나이, 현재 영

업 상황 단계, 경쟁상태, 매출액 증감 과 영업이익증감이 사업지속의향에 영향을 주고, 독립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유 형태, 창업동기 등과 창업 직전 동일업종 경험 여부, 사업운 영실패경험, 창업준비기간, 영업기간, 외부 자금경험, 소상공 인 관련 협회나 단체 가입여부 등이 사업지속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종성(2016)은 사업지속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심리적특성, 배경적 특성, 창업준비 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심리적특성으로 성취욕 구, 위험감수성, 창의성을 배경적 특성으로는 다양한 경험, 네 트워크, 재무적 자원을, 창업준비성으로 사업기획과약, 사업계 획 수립, 전문가 상담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 이들 모두 경영 성과와 창업만족도와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기만(2018)은 창업가가 창업전에 창업준비성 여부 에 따라서 사업체의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였데, 검증 결과 창업준비성을 교육, 컨설팅, 경험으로 구분 하여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모든 창업준비성 요인이 사업 지 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소영·조상 미(2018)는 청년창업자의 사업생존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청년창업자들에게 철저한 창업준비행동이 요구되며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시사 하였다.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설정하였다.

**가설 3: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는 사업계속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3-2: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6 창업동기, 창업준비, 사업계속의도 창업만 족도**

하규수·서상혁(2011)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 업계속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업에 대한 태도, 과거 사업실패경험,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인 것으로 드러났 다.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수록,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없는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낮을수록 사업에 대 한 지속적인 유지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김경애 (2013)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현재 업 종에 만족할 때는 주관적인 것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사 업유지 의사가 있을 수 있다. 이종성(2016)은 사업지속성은 현재 창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만족함으로써 업종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사업지속성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창업가의 심리적특성, 배경적 특성, 창업준비성이 요 소는 모두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경영성과가 창업만족도와 사업지속성에 영향을 주 는 것을 보았다. 이선협·안은재(2018)는 창업 시 창업만족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성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창업동기 요

인을 창업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창업에 대한 사전 적 준비에서 창업 동기요인이 중요하며 창업동기와 창업만족 도에서 어떤 요인을 갖고 창업을 할 것인가를 찾아냈다고 하 였다. 강한혁(2019)은 창업준비성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취욕구가 경영성과를 매개로 하여 창 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가 증진될수록 지속가능성은 더욱 확보된다고 판단되기 때문 에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 정신 그리고 역량특성은 재무 적, 비재무적 성과를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유의 하다고 나왔다. 이기만(2018)은 창업가의 창업 의지는 창업준 비성과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조절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 설 설정하였다. 이희혁(2020)은 창업자특성인 성취욕구, 창의 성, 위험감수성 모두 경영성과 유의하며, 경영성과 달성 정도 가 클수록 창업만족도와 사업지속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설 4: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 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4-1: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 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4-2: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 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조사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요인들 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적접근방법을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고 총 245부 중 222부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즉, 첫째로, 창업동기 항목인 경제적 성취동기(4문항), 자아실현동기(4문항),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4문항), 둘째, 창업준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이템준비(5문항), 네트워크준 비(4문항), 창업팀준비(4문항)로 구성하였다. 셋째로, 창업만족 도(4문항), 사업계속의도(4문항)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지 구성은 <표 7>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7>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측정요인	문항 수	
독립변수	창업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4
		자아실현 동기	4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	4
	창업준비	아이템준비	5
		네트워크준비	4
창업팀준비		4	
매개변수	창업만족도	현재 사업만족도 현재사업 성과만족	4
종속변수	사업계속의도	향후 사업계속의도 실패 후 사업계속의도	4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고, 다항목 척도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평균응답경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다음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 IV. 실증 분석 결과

###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 이내의 초기창업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창업자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효한 설문 222명의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과 함께 창업형태, 창업유형, 대표자 포함 직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 157명(70.7%), 여성 65명(29.3%)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연령은 20대 31명(14.0%), 30대 78명(35.2%), 40대 81명(36.4%), 50대 이상 32명(14.4%)으로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1.6%였다.

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32명(14.4%), 대학교 졸업 112명(50.4%), 대학원(석/박사) 졸업 57명(25.7%)으로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29명(13.1%), 100-200만원 미만 36명(16.2%), 200-300만원 미만 48명(21.6%), 300-400만원 미만 51명(23.0%), 400-500만원 미만 25명(11.2%), 500만 원 이상 33명(14.9%)으로 나타났다.

창업유형은 개인사업자 157명(70.7%), 법인사업자 65명(29.3%)으로 개인사업자가 많았으며, 창업유형은 1인 창업 148명(66.7%), 2인 창업 39명(17.5%), 3인 이상 창업 35명(15.8%)으로 1인 창업이 가장 많았다. 대표자 포함 직원수는 1명인 경우가 80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35명(15.8%), 3명은 36명(16.2%), 4명은 25명(1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57	70.7
	여성	65	29.3
연령	20대	31	14.0
	30대	78	35.2
	40대	81	36.4
	50대 이상	32	14.4
학력	고등학교 졸업	21	9.5
	전문대학교 졸업	32	14.4
	대학교 졸업	112	50.4
	대학원(석/박사) 졸업	57	25.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9	13.1
	100-200만원 미만	36	16.2
	200-300만원 미만	48	21.6
	300-400만원 미만	51	23.0
	400-500만원 미만	25	11.2
창업형태	500만 원 이상	33	14.9
	개인사업자	157	70.7
창업유형	법인사업자	65	29.3
	1인 창업	148	66.7
	2인 창업	39	17.5
대표자 포함 직원 수	3인 이상 창업	35	15.8
	1명	80	36.0
	2명	35	15.8
	3명	36	16.2
	4명	25	11.2
	5명	19	8.6
6명 이상	27	12.2	
합 계		222	100.0

###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고유치 1.0이상, 요인적재량 0.5이상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신뢰성 분석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 0.7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어 실현동기와 네트워크 준비, 사업계속의도에 관한 1항목씩 총 3개 항목이 요인적재량 0.5이하를 보여 제거하였다.

요인 추출 전 실시한 KMO 및 Bartlett 검정 결과, KMO 표본적합도가 .862로 .600이상으로서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chi^2=4045.123$ ,  $p<.001$ 로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또한 고유치 1.0이상인 8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분산 72.903%로서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의 유사성에 따라 요인 1은 '창업팀 준비', 요인 2는 '아이템 준비', 요인 3은 '창업만족도', 요인 4는 '경제적 성취동기', 요인 5는 '사업계속의도', 요인 6은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 요인 7은 '자아실현 동기', 요인 8은 '네트워크 준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창업동기는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 동기,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로 분류되었고, 창업준비는 아이템 준비, 네트워크 준비, 창업팀 준비로 나뉘었으며,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에 따른

Cronbach's  $\alpha$  계수는 경제적 성취동기 .817, 자아실현 동기 .771,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842, 아이템 준비 .863, 창업팀 준비 .946, 네트워크 준비 .849, 창업만족도 .822, 사업계속 의도 .830으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적재량							
		1	2	3	4	5	6	7	8
창업팀 준비	창업팀 준비2	.873	.222	.075	.032	.036	.015	.032	.208
	창업팀 준비4	.858	.163	.158	-.038	.015	.012	.019	.221
	창업팀 준비3	.845	.228	.138	.010	.005	.025	.001	.234
	창업팀 준비1	.836	.195	.087	-.011	.084	.062	.046	.217
아이템 준비	아이템 준비2	.092	.816	.064	-.033	.124	.186	.104	.196
	아이템 준비3	.149	.807	.214	.054	.076	.085	.155	.113
	아이템 준비5	.217	.791	.099	.085	.048	.122	.025	.112
	아이템 준비4	.220	.628	.170	.120	-.016	.067	.058	.114
	아이템 준비1	.348	.595	.164	.092	.204	.200	.128	-.024
창업만족도	창업만족도1	.119	.146	.817	.038	.082	.098	.052	.032
	창업만족도4	.011	.188	.726	.008	.204	.055	.121	.138
	창업만족도2	.235	.089	.722	.022	.252	.140	.047	-.075
	창업만족도3	.127	.182	.685	-.037	.242	.065	.169	.137
경제적 성취동기	경제적 성취동기2	.002	.068	.026	.840	.101	.033	.196	-.068
	경제적 성취동기1	-.167	.089	.002	.784	-.019	.042	.010	.159
	경제적 성취동기4	.063	.130	.020	.766	.064	.147	.260	-.062
	경제적 성취동기3	.168	-.056	-.012	.690	.282	.272	.053	-.031
사업계속 의도	사업계속의도3	.014	.088	.167	.184	.812	.099	.126	.147
	사업계속의도4	.082	.083	.256	.119	.808	.070	.110	-.012
	사업계속의도2	.027	.117	.257	.029	.755	.128	.097	.002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아이디어 실현동기3	.029	.162	.122	.049	.119	.863	.201	.063
	아이디어 실현동기4	.093	.170	.073	.237	.080	.768	.064	.082
	아이디어 실현동기2	-.034	.193	.159	.128	.101	.758	.262	.072
자아실현 동기	자아실현 동기4	.118	.086	.054	.222	.231	.322	.724	.075
	자아실현 동기1	-.172	.111	.313	.299	-.127	.122	.708	.071
	자아실현 동기3	.322	.051	.012	.145	.221	.317	.646	-.128
	자아실현 동기2	-.059	.350	.188	.089	.251	.056	.600	.125
네트워크 준비	네트워크 준비3	.362	.212	-.029	.008	.017	.091	.098	.785
	네트워크 준비2	.369	.210	.115	.095	.034	.156	.049	.718
	네트워크 준비4	.390	.142	.178	-.082	.111	.003	-.022	.716
	eigenvalue	3.894	3.361	2.747	2.732	2.446	2.435	2.181	2.074
분산 %	12.981	11.203	9.158	9.105	8.153	8.118	7.271	6.914	
누적 분산 %	12.981	24.184	33.342	42.447	50.600	58.718	65.989	72.903	
Cronbach's $\alpha$	.946	.863	.822	.817	.830	.842	.771	.849	

### 4.3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측정 변수의 평균응답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창업동기는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 동기,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창업준비는 아이템 준비, 네트워크 준비, 창업팀 준비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창업만족도에 비해 사업계속의도의 평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중 경제적 성취동기의 평균이 4.257로 가장 높았고, 창업팀 준비의 평균이 3.3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0> 기술통계 분석결과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222	1.50	5.00	4.257	.749
	자아실현 동기	222	1.00	5.00	4.119	.814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	222	1.67	5.00	4.074	.783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222	1.00	5.00	3.726	.833
	네트워크 준비	222	1.00	5.00	3.494	.991
	창업팀 준비	222	1.00	5.00	3.328	1.150
창업만족도		222	1.00	5.00	3.830	.735
사업계속의도		222	1.00	5.00	3.989	.909

한편,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표 11>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만족도는 창업동기의 자아실현동기,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 및 창업준비의 모든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였고, 상관계수는 .113에서 .440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사업계속의도는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상관계수는 .180에서 .506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11>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1	2	3	4	5	6	7	8
1. 경제적 성취동기	1							
2. 자아실현 동기	.442***	1						
3.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355***	.517***	1					
4. 아이템 준비	.208***	.411***	.410***	1				
5. 네트워크 준비	.067	.200**	.231*	.470***	1			
6. 창업팀 준비	.053	.129	.164*	.479***	.627***	1		
7. 창업만족도	.113	.400***	.317***	.440***	.292***	.315***	1	
8. 사업계속의도	.290***	.402***	.331***	.303***	.180**	.168*	.506***	1

\* $p < .05$ , \*\* $p < .01$ , \*\*\* $p < .001$

### 4.4 가설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 및 사업계속의도의 영향관계와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다수의 변수 투입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분산 팽창 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확인하였다. 분산 팽창 계수의 경우 10이상으로 나타나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 및 사업계속의도의 영향관계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sup>1)</sup>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 매개효과,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로 파악되었다.

#### 4.4.1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은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설 1의 경우 하위 가설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4.4.1.1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업동기를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VIF 값의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332, p<.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9.8%였다. 또한 월 평균 소득( $\beta=.291, t=3.912, p<.001$ )과 창업형태( $\beta=.164, t=2.250, p<.05$ )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높고 법인사업자일수록 창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동기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7.090,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5.2%로 1단계보다 15.4% 증가하였다.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경제적 성취동기( $\beta=-.155, t=-2.194, p<.05$ )는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창업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실현 동기( $\beta=.291, t=3.912, p<.001$ )와 아이디어 실현동기( $\beta=.291, t=3.912, p<.001$ )는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초기창업자의 동기에 있어 자아실현이나 혁신성(아이디어를 실현동기)이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창업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자

아실현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1(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표 12>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 <sup>a)</sup>			2단계 <sup>b)</sup>		
		$\beta$	t	P	$\beta$	t	P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016	.251	.802	.004	.066	.948
	연령	-.130	-1.891	.060	-.138	-2.106*	.036
	학력	-.001	-.010	.992	-.028	-.439	.661
	월 소득	.291	3.912***	.000	.275	3.964***	.000
	창업형태	.164	2.250*	.025	.078	1.122	.263
	창업유형	-.008	-.110	.913	-.010	-.136	.892
	직원수	-.076	-.877	.381	-.061	-.768	.443
창업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155	-2.194*	.029
	자아실현 동기				.354	4.689***	.000
	혁신성 (아이디어 실현동기)				.150	2.052*	.041
F		3.332**			7.090***		
R2		.098			.252		
$\Delta R2$					.154		

\* $p<.05$ , \*\* $p<.01$ , \*\*\* $p<.001$ , a)VIF:1.016-1.778, b)VIF:1.063-1.788

##### 4.4.1.2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업준비를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으며,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332, p<.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9.8%였다. 또한 월 평균 소득( $\beta=.291, t=3.912, p<.001$ )과 창업형태( $\beta=.164, t=2.250, p<.05$ )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업준비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7.94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7.4%로 1단계보다 17.6% 증가하였다.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네트워크 준비와 창업팀 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템 준비( $\beta=.352, t=4.857, p<.001$ )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이후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네트워크나 창업팀에 대한 준비보다 아이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2(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1) Baron, &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창업준비의 하위요인 중 아이템 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표 13>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a)			2단계(b)		
		$\beta$	t	P	$\beta$	t	P	$\beta$	t	P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016	.251	.802	.056	.920	.359			
	연령	-.130	-1.891	.060	-.163	-2.608*	.010			
	학력	-.001	-.010	.992	-.038	-.600	.549			
	월 소득	.291	3.912***	.000	.228	3.352**	.001			
	창업형태	.164	2.250*	.025	.109	1.632	.104			
	창업유형	-.008	-.110	.913	-.058	-.802	.424			
	직원수	-.076	-.877	.381	-.054	-.687	.493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352	4.857***	.000			
	네트워크 준비				.069	.864	.389			
	창업팀 준비				.084	1.036	.301			
	F	3.332**			7.948***					
R2	.098			.274						
$\Delta R2$				.176						

\* $p < .05$ , \*\* $p < .01$ , \*\*\* $p < .001$ , a) VIF: 1.016-1.778, b) VIF: 1.070-1.895

한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8.204$ ,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3.9%로 1단계보다 24.1% 증가하였다.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창업만족도에 대해 경제적 성취동기( $\beta = -.150$ ,  $t = -2.240$ ,  $p < .05$ )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아실현 동기( $\beta = .274$ ,  $t = 3.713$ ,  $p < .001$ )와 아이템 준비( $\beta = .235$ ,  $t = 3.081$ ,  $p < .01$ )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경제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낮아지지만, 자아실현 동기와 아이템 준비가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a)			2단계(b)		
		$\beta$	t	P	$\beta$	t	P	$\beta$	t	P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016	.251	.802	.029	.484	.629			
	연령	-.130	-1.891	.060	-.164	-2.629**	.009			
	학력	-.001	-.010	.992	-.047	-.770	.442			
	월 소득	.291	3.912***	.000	.237	3.567***	.000			
	창업형태	.164	2.250*	.025	.065	.987	.325			
	창업유형	-.008	-.110	.913	-.064	-.902	.368			
	직원수	-.076	-.877	.381	-.048	-.631	.529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150	-2.240*	.026
	자아실현 동기					.274	3.713***	.000
	아이디어 실현동기					.079	1.105	.271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235	3.081**	.002
	네트워크 준비					.047	.603	.547
	창업팀 준비					.118	1.513	.132
F		3.332**			8.204***			
R2		.098			.339			
$\Delta R2$					.241			

\* $p < .05$ , \*\* $p < .01$ , \*\*\* $p < .001$ , a) VIF: 1.016-1.778, b) VIF: 1.121-1.923

#### 4.4.2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고, 1단계와 2단계 모두에서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2.119$ ,  $p < .05$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5%였다.

월 평균 소득( $\beta = .181$ ,  $t = 2.391$ ,  $p < .05$ )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창업만족도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10.371$ ,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8.0%로 1단계보다 21.5% 증가하였다. 창업만족도( $\beta = .489$ ,  $t = 7.987$ ,  $p < .001$ )는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창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창업이후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창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표 15>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a)			2단계(b)		
		$\beta$	t	P	$\beta$	t	P	$\beta$	t	P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082	-1.234	.218	-.090	-1.540	.125			
	연령	-.035	-.503	.615	.028	.456	.649			
	학력	.008	.114	.909	.008	.135	.893			
	월 소득	.181	2.391*	.018	.039	.564	.573			
	창업형태	.108	1.459	.146	.028	.426	.670			
	창업유형	-.116	-1.479	.141	-.111	-1.622	.106			
	직원수	.036	.407	.685	.073	.940	.348			
창업만족도					.489	7.987***	.000			
F		2.119*			10.371***					
R2		.065			.280					
$\Delta R2$					.215					

\* $p < .05$ , \*\*\* $p < .001$ , a) VIF: 1.016-1.778, b) VIF: 1.016-1.784

### 4.4.3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은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하위가설이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4.4.3.1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업동기를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으며, VIF 값의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2.119, p<.05$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5%였다. 월 평균 소득( $\beta=.181, t=2.391, p<.05$ )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동기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6.021,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2.2%로 1단계보다 15.7% 증가하였다.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경제적 성취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을 제외하고 자아실현 동기( $\beta=.281, t=3.643, p<.001$ )가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초기창업자의 자아실현 동기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창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 자아실현 동기가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1(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표 16>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a)			2단계(b)		
		$\beta$	t	P	$\beta$	t	P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082	-1.234	.218	-.055	-.882	.379
	연령	-.035	-.503	.615	.006	.089	.929
	학력	.008	.114	.909	-.013	-.201	.841
	월 소득	.181	2.391*	.018	.133	1.879	.062
	창업형태	.108	1.459	.146	.009	.127	.899
	창업유형	-.116	-1.479	.141	-.092	-1.280	.202
	직원수	.036	.407	.685	.054	.663	.508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088	1.228	.221
	자아실현 동기				.281	3.643***	.000
	아이디어 실현동기				.129	1.725	.086
F		2.119*			6.021***		
R <sup>2</sup>		.065			.222		
$\Delta R^2$					.157		

\* $p<.05$ , \*\*\* $p<.001$ , a)VIF: 1.016-1.778, b)VIF: 1.063-1.788

#### 4.4.3.2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업준비를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2.119, p<.05$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5%였다. 월 평균 소득( $\beta=.181, t=2.391, p<.05$ )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창업준비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331,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3.6%로 1단계보다 7.1% 증가하였다.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에서는 네트워크 준비와 창업팀 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템 준비( $\beta=.226, t=2.864, p<.01$ )가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창업 아이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아이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2(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창업준비의 아이템 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표 17>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a)			2단계(b)		
		$\beta$	t	P	$\beta$	t	P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082	-1.234	.218	-.061	-.922	.358
	연령	-.035	-.503	.615	-.058	-.852	.395
	학력	.008	.114	.909	-.020	-.291	.771
	월 소득	.181	2.391*	.018	.146	1.960	.051
	창업형태	.108	1.459	.146	.074	1.015	.311
	창업유형	-.116	-1.479	.141	-.145	-1.827	.069
	직원수	.036	.407	.685	.053	.615	.539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226	2.864**	.005
	네트워크 준비				.090	1.032	.303
	창업팀 준비				.000	-.001	.999
F		2.119*			3.331***		
R <sup>2</sup>		.065			.136		
$\Delta R^2$					.071		

\* $p<.05$ , \*\* $p<.01$ , \*\*\* $p<.001$ , a)VIF: 1.016-1.778, b)VIF: 1.070-1.895

한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으며,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4.972,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3.7%로 1단계보다 17.2% 증가하였다.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에서는 자아실현 동기( $\beta=0.252$ ,  $t=3.169$ ,  $p<.01$ )만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8>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a)			2단계b)		
		$\beta$	t	P	$\beta$	t	P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082	-1.234	.218	-.053	-.825	.411
	연령	-.035	-.503	.615	-.004	-.054	.957
	학력	.008	.114	.909	-.024	-.374	.709
	월 소득	.181	2.391*	.018	.117	1.641	.102
	창업형태	.108	1.459	.146	.006	.086	.931
	창업유형	-.116	-1.479	.141	-.124	-1.644	.102
	직원수	.036	.407	.685	.062	.760	.448
창업 동기	경제적 성취동기				.090	1.252	.212
	자아실현 동기				.252	3.169**	.002
	아이디어 실현동기				.103	1.349	.179
창업 준비	아이템 준비				.063	.765	.445
	네트워크 준비				.055	.662	.508
	창업팀 준비				.051	.604	.547
F		2.119*			4.972***		
R2		.065			.237		
$\Delta R2$					.172		

\* $p<.05$ , \*\* $p<.01$ , \*\*\* $p<.001$ , a)VIF: 1.016-1.778, b)VIF: 1.121-1.923

#### 4.4.4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가설 4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2개의 하위가설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가설별로 분석을 하였다.

##### 4.4.4.1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독립변수(창업동기)가 매개변수(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창업동기)가 종속변수(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립변수(창업동기)와 매개변수(창업만족도)가 종속변수(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9>와 같이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창업동기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VIF의 경우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창업만족도로 인해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beta=.409$ 에서  $\beta=.292$ 로 감소하였으므로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만족도가 유의미한 매개변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723$ ,  $p<.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은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표 19>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창업만족도a)			사업계속의도b)			사업계속의도c)		
		$\beta$	t	P	$\beta$	t	P	$\beta$	t	P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049	.771	.442	-.037	-.607	.544	-.057	-1.011	.313
	연령	-.094	-1.419	.157	.015	.231	.818	.053	.889	.375
	학력	-.010	-.155	.877	-.005	-.083	.934	-.001	-.021	.983
	월 소득	.243	3.369**	.001	.114	1.618	.107	.016	.244	.807
	창업형태	.107	1.500	.135	.028	.404	.687	-.015	-.234	.815
	창업유형	.005	.067	.947	-.097	-1.354	.177	-.099	-1.512	.132
	직원수	-.065	-.788	.432	.051	.627	.531	.077	1.041	.299
창업동기	.293	4.518***	.000	.409	6.475***	.000	.292	4.825***	.000	
창업만족도							.402	6.592***	.000	
F		5.731***		7.449***		12.770***				
R2		.177		.219		.352				
Adj.R2		.146		.189		.324				

\*\* $p<.01$ , \*\*\* $p<.001$ , a)VIF: 1.029-1.779, b)VIF: 1.029-1.779, c)VIF: 1.032-1.784

##### 4.4.4.2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독립변수(창업준비)가 매개변수(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창업준비)가 종속변수(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립변수(창업준비)와 매개변수(창업만족도)가 종속변수(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0>과 같이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VIF의 경우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창업만족도로 인해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beta=.257$ 에서  $\beta=.065$ 로 감소하면서 창업준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만족도가 유의미한 매개변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765$ ,  $p<.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2(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표 20>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창업만족도a)			사업계속의도b)			사업계속의도c)		
		$\beta$	t	P	$\beta$	t	P	$\beta$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27	.455	.650	-.076	-1.168	.244	-.088	-1.503	.134
	연령	-.153	-2.417	.017	-.049	-.719	.473	.021	.342	.733
	학력	-.040	-.635	.526	-.016	-.241	.810	.002	.034	.973
	월 소득	.226	3.284**	.001	.141	1.893	.060	.036	.526	.599
	창업형태	.127	1.897	.059	.085	1.179	.240	.027	.403	.687
	창업유형	-.103	-1.433	.153	-.174	-2.247*	.026	-.127	-1.795	.074
	직원수	-.051	-.645	.520	.051	.599	.550	.075	.964	.336
창업준비	.415	6.568***	.000	.257	3.765***	.000	.065	.962	.337	
창업만족도							.462	6.887***	.000	
F		8.882***		3.739***		9.318***				
R2		.250		.123		.283				
$\Delta R2$		.222		.090		.253				

\* $p < .05$ , \*\* $p < .01$ , \*\*\* $p < .001$ , a) VIF: 1.017-1.782, b) VIF: 1.017-1.782, c) VIF: 1.018-1.785

한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모두 투입하여 사업계속의도에 대한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VIF의 경우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beta = .367$ 에서  $\beta = .292$ 로 감소하여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Sobel test 결과  $Z = 2.608$ ,  $p < .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142$ 에서  $\beta = -.002$ 로 감소하면서 창업준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완전매개효과가 있었고, Sobel test 결과  $Z = 4.089$ ,  $p < .0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1>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창업만족도a)			사업계속의도b)			사업계속의도c)		
		$\beta$	t	P	$\beta$	t	P	$\beta$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046	.777	.438	-.038	-.629	.530	-.057	-1.009	.314
	연령	-.127	-2.021*	.045	.002	.032	.974	.053	.882	.379
	학력	-.041	-.654	.514	-.017	-.272	.786	-.001	-.018	.986
	월 소득	.204	3.006**	.003	.098	1.405	.162	.016	.244	.807
	창업형태	.096	1.436	.152	.024	.344	.731	-.015	-.234	.815
	창업유형	-.081	-1.144	.254	-.131	-1.798	.074	-.099	-1.460	.146
	직원수	-.048	-.615	.539	.058	.718	.474	.077	1.037	.301
창업동기	.185	2.892**	.004	.367	5.568***	.000	.292	4.707***	.000	
창업준비	.356	5.461***	.000	.142	2.108*	.036	-.002	-.027	.979	
창업만족도							.403	6.167***	.000	
F		9.097***		7.222***		11.438***				
R2		.279		.235		.352				
$\Delta R2$		.248		.202		.321				

\* $p < .05$ , \*\* $p < .01$ , \*\*\* $p < .001$ , a) VIF: 1.029-1.782, b) VIF: 1.029-1.782, c) VIF: 1.032-1.785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22>과 같다.

<표 22> 가설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
가설1	창업동기, 창업준비→창업만족도	일부 채택
1-1	창업동기→창업만족도	채택
1-2	창업준비→창업만족도	일부 채택
가설2	창업만족도→사업계속의도	채택
가설3	창업동기, 창업준비→사업계속의도	일부 채택
3-1	창업동기→사업계속의도	일부 채택
3-2	창업준비→사업계속의도	일부 채택
가설4	창업동기, 창업준비→사업계속의도 :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채택
4-1	창업동기→사업계속의도 :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채택
4-2	창업준비→사업계속의도 :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채택

##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5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총 245부 중 부실기재로 판단되는 23부를 제외하고 222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성주 외(2014)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향하는 정부의 수많은 지원사업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창업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이라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이 대상이 아닌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가설 1의 경우 하위가설 2개로 구성되어 이들 각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창업동기는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월 평균 소득이 높고 법인사업자일수록 창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업동기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경제적 성취동기는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창업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에 있어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실

현동기)이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초기창업자들이 창업동기에 있어 경제적인 동기 보다는 자아실현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네트워크준비와 창업팀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창업아이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이후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네트워크나 창업팀에 사전준비도 중요하지만 아이템에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창업준비의 하위요인 중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김남표·권영주(2018)는 창업준비성이 충실할수록 재무적 성과는 기각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채택, 창업만족도는 채택되었다. 즉, 비재무적성과 또는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Sandburg & Hoffer(1987)의 ERIS 모델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실패 원인을 연구하였는데 한국 창업기업의 실패는 사업준비 부족형이 가장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준비 부족형 실패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창업하고 결국 불완전 제품을 출시하였다가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초기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기 전 창업동기는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을 높이고, 창업준비는 창업 전 철저한 아이템 준비를 통해 창업을 해야 창업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창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창업이후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창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2는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원석(2016)의 선행연구에서도 대졸창업자의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일자리만족도는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창업자의 일자리만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더라는 연구와 일치하다.

셋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하위가설이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월 평균 소득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경제적 성취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을 제외하고 자아실현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초기창업자의 자아실현 동기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창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 자아실현 동기가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1은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에서는 네트워크준비와 창업팀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템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창업아이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을수록 사업계속의도가 높아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아이터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2의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는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창업준비의 아이터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한편, 창업동기와 창업준비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실현동기만이 사업계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 4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2개의 하위가설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 가설별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1은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사업계속의도 간의 창업만족도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만족도는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창업준비의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창업만족도로 인해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면서 창업준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는 창업만족도와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2는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상기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초기창업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보다는 창업을 하기전에 창업에 대한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꿈을 꾸어왔고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아실현동기가 명확해야 하고, 창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치고 싶고 새로운 것을 하고 만들고 싶고 반드시 구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이 준비가 되어야 창업을 하였을 때 창업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창업준비는 기업의 성과와 연결이 되어 아주 중요한데 창업준비 중에서 아이템 준비를 명확히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 창업을 할 때 창업만족도에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창업자가 창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계속의도 또한 확보될 수 있다. 즉, 초기창업자들은 꿈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자아실현동기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드시 이루고자하는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이 높고 창업준비 전에 철저한 아이터준비를 통해 창업만족도를 높일 때 사업계속의도가 됨으로써 초기창업자의 계속 사업을 할 원동력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창업동기와 창업준비에 기초하여 초기창업자들이 창업을 한 후에 창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보다는 창업 전부터 자신만의 적극적인 성취 지향적 성격과 혁신성(아이디어 실현 동기)에 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창업자들은 구체적인 사업아이템 설정 및 검증과 구현에 대한 전략 또한 요구된다. 특히 초기창업자들은 창업을 하고 난 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닌 창업을 하기 전 많은 시간과 연구조사를 통해 창업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중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 실현동기)과 아이터 준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창업을 하였을 때 창업에 대해 창업만족도가 높고 사업계속유지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초기창업자들의 표본수가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초기창업자들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표본수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를 단일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다수의 하위 변수를 포함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향후에도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와 사업계속의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초기창업자들을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육성제도가 있지만 초기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해 만족하고 창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전부터 초기창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자들이 자아실현동기와 혁신성(아이디어실현동기)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초기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초기창업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차별화되면서 검증된 아이터 준비로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창업을 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창업만족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멘토링도 필요하다. 김영부(2019)의 연구에서처럼 창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창업자들의 창업성과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자에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조금 더 심도 깊은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 REFERENCE

- 강순빈(2012). *창업자의 창업동기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사전 준비가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기업창업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강한혁(2019).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경영 성과를 매개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강한혁·박우진·배병운(2019).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경영성과를 매개로 하여. *벤처창업연구*, 14(3), 59-71.
- 구문모(2012). 창조산업에서 1인 창조기업의 지속성 연구에 관한 소고. *인문콘텐츠학회*, 27, 155-70.
- 김경은·주병철(2018). 청년창업자의 동기요인이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1(5), 1621-1640.
- 김경애(2013). *소상공인의 심리적특성, 창업가정신, 창업만족, 창업추천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디저트 카페 창업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남표·권영주(2018).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성, 사회적지지, 정부의 창업컨설팅 지원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 13(3), 94-118.
- 김성훈·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비교분석.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 김영부(2019). 창업관련 개인적 특성변수와 심리적 요인들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 180-189.
- 김태희·주성희(2015). 사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점포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프랜차이즈학회*, 1(1), 96-115.
- 남정민·박정우·전병준(2013).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생존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5), 27-44.
- 남정민(2013).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준기·이세윤(2017). 스타트업 팀의 조직 자부심 선행요인: 팀 효율성,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경영경제연구*, 39(2), 163-188.
- 박정우(2020). *초기 스타트업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 팀 학습 행동, 팀 경제 확장 행동 및 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혜근·양동우(2018). 창업초기기업의 기술사업화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제조업창업자 기술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5), 1-29.
- 변충규·성상수(2014). 예비창업자의 창업동기에 따른 창업지원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IPA)분석: 청년창업자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29(5), 99-116.
- 송치승·노용환(2011).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미시적 특성과 생존요인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4(3), 1-24.
- 선량·허철무(2019).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117-137.
- 안소영·조상미(2018). 청년창업자의 사업생존 영향요인: 일반족도 및 일 적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4), 85-115.
- 오재우·이동형·강진규(2015). 창업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 경영성과

-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1), 129-141.
- 이기민(2018).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준비성이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대희·진창현(2016). 한국기업의 경영혁신역량과 기업가 정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23(3), 127-149.
- 이병권(2014). *창업동기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 이선협·안은재(2018). 여성창업자의 창업동기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지를 매개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 논문지*, 23(6), 95-112.
- 이중성(2016). *외식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중성·임영희·김태희(2017). 외식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식경영학회*, 20(1), 1-27.
- 이주현(2008). 창업동기와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30(1), 93-116.
- 이인우·정양현·최지현(2015).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지속성 분석: 만족도와 향후이용의사, 추천의사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30(3), 111-132.
- 이원석(2016). *대졸 청년창업자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이원석·주동범(2016). 대졸창업자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열린교육연구*, 24(4), 139-161.
- 이혜영·김진수(2017).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팀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 12(2), 31-55.
- 이현우(2020.3.9.). *성인남녀 5명 중 1명 '창업해봤다' 경험자 68% 2년 내 사업접어*. 뉴스인직업, Retrieved from, <http://www.thejo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953>.
- 이희혁(2020). *소규모 외식창업자의 특성, 성공요인, 만족도 및 사업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경영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윤종록·김형철·김오순(2009). 중국벤처기업이 창업가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 4, 463-496.
- 정성한·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4(2), 3-29.
- 조정미·공병훈(2012). 1인 출판 창업동기와 유지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3(4), 18-55.
- 조달청(2014). *창업초기기업 인정보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뉴스, Retrieved (2014.10.29.) from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686>.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 최경식(2020.3.9.). *겉도는 창업지원, 72%가 5년내 폐업*. 단명한 창업기업. 파이낸셜 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fnnews.com/news/201808121727056092>.
- 통계청(2018). *2015년 기업생명행정통계 보고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3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3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4). *연매출액 10억 이하 기업도 초기 기업으로 봐야*. 조선비즈, Retrieved 2014.09.23.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2346.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2346.html).
- 하규수(2009).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하규수·서상혁(2011). 사업위험에 대한인지가 창업의욕 및 사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14(S), 1285-1311.
- 하규수·한정화(2010). 기업가의 사업실패스트레스와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32(1), 21-41.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Cited in Hansen*, 50, 179-211.
- Ajzen, I.(2005).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cGraw-Hill Education(UK).
- Aldrich, H., & Martinez, M.(2001).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Discussion Paper)*.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An, S. Y., & Cho, S. M.(2018). What Makes Youth Entrepreneurs Surviv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Job Satisfaction and Person, Job Fit.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3(4), 85-115
- Baron, &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gley, T. M., & Boyd, D. 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79-93.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yun, C. G., & Sung, C. S.(2014). A Study on IPA Analysis of Start-ups by Government Policy: The focus of Youth Start-up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3(6), 95-112.
- Carter, D. A., Simkins, B. J., & Simpson, W. G.(2003). Corporate governance, board diversity, and firm value. *Financial Review*, 38, 33-52.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Chowdhury, S.(2005). Demographic diversity for building an effective entrepreneurial team: is it importa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6), 727-746.
- Cooper, A. C., & Dunkelberg, W. C.(1984). *Entrepreneurship and paths to business ownership*. Kranner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Purdue University.
- Carsrud, A., & Brannback, M.(2011). Entrepreneurship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Cho, J. M., & Kong, B. H.(2012). The Study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and Maintenance Factors of Independent Publ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4), 1541-1550.

- Choi, K. S.(2020). *Outwardly, support for start-ups, 72% closed in the 5s. Short-lived start-up company.* Financial News, Retrieved from <https://www.fnnews.com/news/201808121727056092>.
- Gilad, B., & Levine, P.(1986). A Behavior Model of Entrepreneurial Suppl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 45-53.
- Goo, M. M.(2012). A Study on the sustainable growth of creative micro businesses in creative industry. *Korea Humanities Contents Society*, (27), 155-170.
- Hisrich, R. D., & Peters, M. P.(1986). Establishing a new business venture unit within a fir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307-322.
- Ha, K. S.(2009). *A Study on the Cost of Entrepreneur's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Ha, K. S., & Han, J. W.(2010). A Study on the Failure-Stress of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Small Business Association*, 32(1), 21-41.
- Ha, K. S., & Seo, S. H.(2011). Analysis of Recognition on Business Risk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3(S), 1285-1311.
- Jeong, S. H., & Kim, H. R.(2001). An Exploratory Study on Success Factors in Small Business Startup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4(2), 3-29.
-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4). *Companies with annual sales of less than 1 billion should be considered as early companies.* Chosunbiz, Retrieved 2014.09.23.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2346.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2346.html).
- Kim, K. A.(2013). *A Study on Relations among Small Business Person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ial Recommendation Intention: Focusing on Entrepreneurs of Dessert Cafes.* Doctoral Dissertation, Kyungshung University.
- Kantis, Hugo, Ishida Masahiko and Komori Masahiko(2002).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cs: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ew Firm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Kang, S. B.(2012). *Report on corporation performance influenced by entrepreneur's motive, entrepreneurship, and advanced preparation: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Kang, H. H.(2019). *The entrepreneur's motivation for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and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y on entrepreneurship substantiality: by mediating start-up company management performanc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im, S. H., & Nam, J. M.(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 Kim, T. H., & Joo, S. H.(2015).The Study of Characteristic for Small Independent Stores Affected Business Sustainment Intention. *Korea Academic Society of Franchisin*, 1(1), 96-115.
- Kim, K. E., & Ju, B. C.(2018). The Effects on the Motivation Factor of Young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ear of Start-up Failure.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31(5), 1621-1640.
- Kim, N. P., & Kwon, Y. J.(2018). An Examin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Start-up Readiness, Social Support, Government Start-up Consulting, and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13(3), 1-25.
- Kang, H. H., Park, W. J., & Bae, B. Y.(2019). Impact of Entrepreneurial Business Start-up Motivation, Entrepreneurial Spirit,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Characteristics on Start-up Companies' Sustaina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Companies'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3), 59-71.
- Kim, Y. B.(2019).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business start-up related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business start-u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0(2), 180-189.
- Lee, S. H., & An, E. J.(2018).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ial Motivation in Women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Mediated by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ommitment to Start-up.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23(6), 95-112.
- Lee, W. S.(2016). *The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ion Youth Entrepreneur.*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Lee, B. G.(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Focusing on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Lee, W. S., & Ju, D. B.(2016).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ion Youth Entrepreneur.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4(4), 139-161.
- Lee, J. H.(2008). A Study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0(1), 41-64.
- Lee, H. H.(2020).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mall Scale Food service: The Mediating Effect of Management Performance.*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Lee, I. W., Chung, Y. H., & Choi J. H.(2015). Study on Continuit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Servic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30(3), 111-132.
- Lee, S. H., & Ha, K. S.(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0(5), 137-150.
- Lee, J. S., Lim, Y. H., & Kim, T. H.(2017). The Effect of Food Service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in Food Service Business. *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20, 1-27.
- Lee, J. S.(2016). *The Effect of Management Performance,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ial Persistence Intention by Food Service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Graduate School of Tourismm, Kyung Hee University.
- Lin, N.(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Structur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1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H. Y., & Kim, J. S.(2017). The Impacts of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Teams Competency on the Performance of New Technology-based Startups.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31-56.
- Lee, G. M.(2018). *Influence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Startup Preparedness on Business Continu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Will*.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H. W.(2020). *One in five adult men and women 68% of those who have "started a business" experience quit business within two years*. News in Job, Retrieved from <http://www.thejo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953>.
- Rogers, C. R.(1951). Studies in client-centered psychotherapy III: the case of Mrs. Oak-a research analysis. *Psychological Service Center Journal*.
- Reynolds, P. D., & White, S. B.(1997). *The entrepreneurial process: Economic growth, men, women, and minorities*. Praeger Pub Text.
- Rogge, K. S., Schneider, M., & Hoffmann, V. H.(2011). The innovation impact of the EU Emission Trading System-Findings of company case studies in the German power sector. *Ecological Economics*, 70(3), 513-523.
- Maslow, A. H.(1943). *Preface to motivation theory*. Psychosomatic medicine.
- Maslow, A. H.(1946). Problem-centering vs. Means-centering in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13(4), 326-31.
- McClelland, D. C.(1961). *Achieving society*(No. 15).
- Rogers, E. M.(2010). *Diffusion of innovations*. Simon and Schuster.
-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 Mazzarol, T., & Thiery, V. D.(1999). Noelle and Thein Vicki,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5, 48-64.
- Maignan, I., & Ferrell, O. C.(2001). Corporate citizenship as a marketing instrument-Concepts, evidence and research direction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0). *2020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Startup Support Project*.
- Nam, J. I.(2013). *A study on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for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Intention*,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5-30
- Nam, J. M., Chun, B. J., & Park, J. W.(2013). Success Factors of Start-ups: An Empirical Study. *Korean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20(5), 27-44.
- Oh, J. W., Lee, D. H., & Kang, J. K.(2015).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 of Venture Prepar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of initial Venture Foundation: Focused on The Effect of Controlling The Period of Venture Prepa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67-80.
- Park, J. G., & Lee, S. Y.(2017).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Pride in Start-up Teams from Team Effectiveness, Work and Life Balance and.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9(2), 163-188.
- Park, H. G., & Yang, D. W.(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f Early Start-up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anufacture Founders' Technological Capability.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13(5), 1-29
- Park, J. W.(2020). *The Relationships between Founders' Entrepreneurial Leadership, Team Learning Behavior, Team Boundary Spanning, and Performance in the Early-Stage Startup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ublic Procurement Service(2014). Expanding the scope of recognition for the initial start-up company from 2 years to 5 years. *Small and Medium Business News*, Retrieved (2014.10.29.) from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686>.
- Sandberg, W. R., & Ho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5-28.
- Shane, S. A., Kolvereid, L., & Westhead, P.(1991). *Do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trepreneurs differ at start-up?*.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nider Entrepreneurial Center.
- Shan, L. & Heo, C. M.(2019). Effects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in Preliminary Young Entrepreneurs: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117-137.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translation of second German edition by Redvers Opi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Schein, E. H.(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Reading, Mass. Addison-Wesley.
- Sandberg W. R., & Hof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5-28.
- Shepherd, D. A., Douglas, E. J., & Shanley, M.(2000). New venture survival: Ignorance, external shocks, and risk reduction strateg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393-410.
- Song, C. S., & Noh, Y. H.(2011). Characteristics of Korean Venture Firms and Their Survival Analysis:A Micro-Lever Approach.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4(3), 1-24.
- Statistics Korea(2018). *2015 Corporate Life Administration Statistics Repor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3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3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Yun, J. R., Kim, H. C., & Kim, O. S.(2009). An Empirical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of the China Venture Business.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4, 463-496.
- Vyakarnam, S., Jacobs, R., & Handelberg, J.(1999). Exploring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teams: the key to rapid growth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6(2), 153-165.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ascent Entrepreneurs Motivation and Preparation on the Business Continuity: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Han Hyang Won\*

Ha Kyu Soo\*\*

##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provided about 35 trillion won to start-ups through a large amount of start-up support funds from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more than 100 trillion won to start-ups over the past three years.(2015-2018)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a total of 1.4517 trillion won will be supported by 16 ministries (90 projects) after surveying start-up support projects by ministries in 2020 to create a start-up country. Indeed, among the budget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tartups accounted for 85%, while scale-ups (growth and maturity) were only 15%.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Korean start-ups was far lower than that of developed countries. The survival rate for the three years after the start-up was 39.1 percent, with only about 4 out of 10 surviving, with 27.5 percent surviving for five years, and only 3 out of 10 surviving. On the other hand, overseas start-ups have a survival rate of twice as high as that of Korea for five year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and examine the need for research on nascent entrepreneurs, which have recently been active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impact of start-up motivation and start-up preparation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busines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 to May 15, 2020 for nascent entrepreneurs nationwide, and 222 of the total 245 copies were analyzed, and the questionnaire was measured using the Likert 5-point sca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ll factors constituting start-up motivation were adopted by significantly affecting start-up satisfaction. In addition, among the sub-factors of nascent entrepreneurs' preparation, item preparation was adopted 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start-up satisfaction. Second, the nascent entrepreneurs' satisfaction level was adopted by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continuity. Third, some of the motivations for self-realization of the motivation for start-ups were adopted by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continuity. In addition, the preparation of items for the start-up preparation of nascent entrepreneurs was partially adopted as the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continuity. Fourth, it was adopted by the mediation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between the motivation of the nascent entrepreneurs' preparation and the business continuity. In addition, it was adopted by the medium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between the nascent entrepreneurs' preparation and the business continu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is intended to draw practical implications, an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nascent entrepreneurs' satisfaction and continue to carry out their start-ups.

*KeyWords: Nascent Entrepreneurs, Startup Motivation, Start-up preparation, Business continuity intention, Start-up Satisfaction*

---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1st author, Ph. D. in venture business administration at Hoseo University, hanhyangwon@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rrespondent, Professor of Venture Management at Hoseo University, ksh@hoseo.edu